

시끌벅적 e-스타



물 위에서 춤을... '생활과학UCC' 동영상 화제

물 위에서 춤 추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오는 11월10일까지 여는 '제2회 전국민 생활과학 경진대회'의 하나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생활과학UCC 공모전'의 홍보 동영상인 화제다. 비보이(B-Boy·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남자)들이 두 손으로 물구나무를 서는가 하면 어깨와 다리를 풍차처럼 돌리는 등 브레이크 댄스를 선보이는 것은 어느 비보이 동영상과 비슷하다. 특이한 점은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흰색 물줄로 덮인 물이 출렁거린다는 것. 한 광고대행사 비주얼 아이디어 그룹인 '노바디노즈'가 만든 2분20초 분량의 동영상의 비밀은 물과 함께 들어 있는 진분, '진분을 첨가한 물에서는 빨리 움직이면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제작했다. 물과 진분이 들어있는 상자 위에 가만히 서 있다가 빠지는 장면, 물 위에서 실재없이 움직일 때 차이점이 동영상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한 번 빠지면 밖으로 나오는데만 30분 정도 걸린다. 제작진은 가로 3m·세로 3m·높이 1m의 상자에 물과 진분을 함께 넣어 비보이들의 무대를 마련했다. 사용한 진분량은 4t. 촬영 시간은 24시간이 넘는다. 노바디노즈 이석(32) 차장은 "진분이 물 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제작하면서 취지는 작업도 수백번 해야 했다"면서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문화적 요소를 활용,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 누구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브레이크 댄스를 선보인 비보이들이 독일·프랑스(2004년), 영국(2005년), 미국(2006년) 등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를 휩쓴 세계적인 비보이팀 '갬블러 크루' 멤버라는 것도 관심사다. 노바디노즈는 인터넷 동영상을 즐기는 네티즌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전문가들, 연우와 개미 7천마리를 이용해 팔러트 김태희의 얼굴을 그린 동영상도 이들의 작품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니의승의 음악산책

우리는 뭔가에 한 눈을 팔게 되면 그것에 가려진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흔히 사용하는 '눈에 콩깍지'라는 말이 있다. 사랑에 눈이 먼 경우를 표현하는 말일 것이다. 미국 팝송 중에 'Smoke gets in your eyes'(연기가 당신의 눈에)라는 곡이 있다. 1959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랐고 그 뒤 영화의 삽입곡으로 간혹 나오거나 라디오의 올드 팝 프로그...



당신의 눈에 콩깍지가

최근의 연주 기록 중에는 '에디 하긴스'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있다. 재즈에서는 '피아노·드럼·베이스'의 세 악기를 '리듬 섹션'이라고 하는데 에디의 음반에서는 '스캇 해밀턴'이라는 '스텐 겟츠'처럼 편안한 느낌의 연주자와 함께 한다. 그들 연주는 리듬 섹션의 두툽한 요를 깔고 '색소폰'을 그 위에 쉬는듯이 여유있게 존재하게 했다 할까. 아침 저녁 공기의 느낌이 하루만 지나도 다르게 느껴지고 머지않아 단풍이 다가올 것만 같은 계절에, 평소 재즈를 자주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들어 볼만한 음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혹시 당신의 작은 사치, 그 안에서 짧은 자동차의 드라이브를 즐길 때 좋은 동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음악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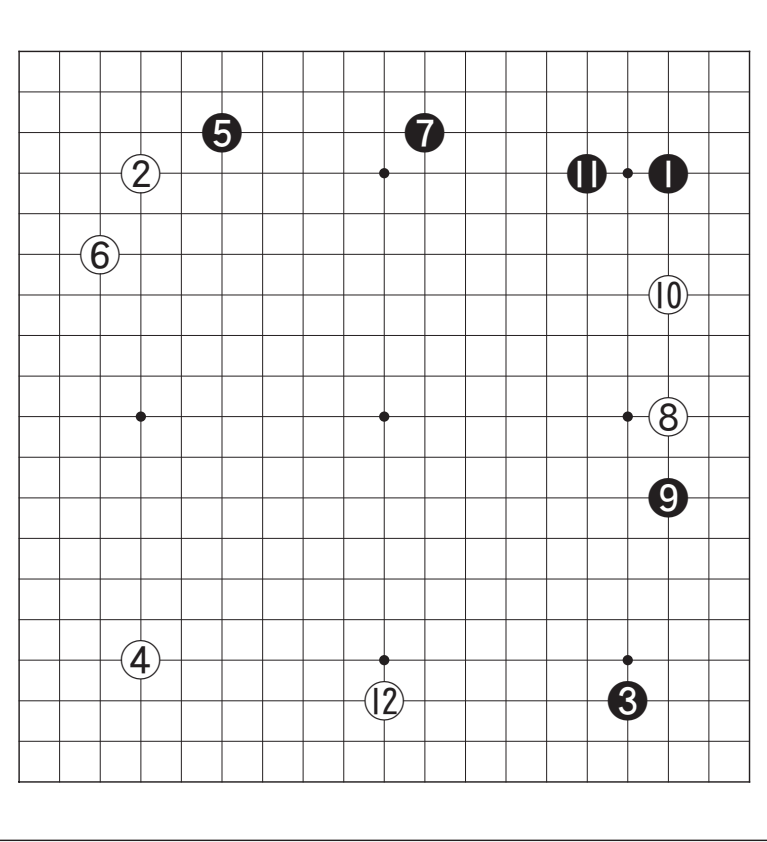
뉴스퀴즈

85.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최근 인간이 이기한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와 이 사람을 2007년 노벨 평화상의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①엘 고어 ②조지 부시 ③무하미드 유누스 ④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8일 (음 9월 8일 乙酉)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최강자와 다크호스의 대결 1보(1~12)

최강부 손결승 2국 白 심재욱 6단 黑 노기철 5단. 전세계 6단이 결승에 선착해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준결승전으로 이 판을 이긴 사람이 전세계 6단과 광주 최강자의 영예를 걸고 결승전을 벌이게 된다. 백을 든 심재욱 6단은 전세계 6단과 함께 생벽을 이루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 지역의 최강자다. 최근에는 컨디션이 최고조로 작년 이창호배 전국아마최강자전에서 3위에 입상한 바 있고 올해에는 전남도지사배에서 시니어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최근 열린 제88회 전국체전 바둑대회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고 광주가 종합4위를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기도 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홍민표, 농심배 한국에 첫승. 홍민표 6단이 한국팀에 첫 승을 안겼다. 한국의 첫 주자인 홍 6단은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9회 농심배 세계바둑최강전 제2국에서 2연승에 도전하는 일본의 하네 나오키 9단을 237수 만에 백 반점으로 꺾었다. 홍 6단은 18일 중국의 4장을 상대로 2연승에 나선다. 한국은 이 대회에 홍 6단을 비롯해 이창호, 박영춘, 조한승, 목진석 등 5명이 출전하고 있다.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60초 1회이며, 우승상금은 1억 5천만 원이다. 3연승을 거둘 경우 1천만원의 연승상금이 지급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014> 오하오우 니혼고 <1014> 니하오 풍구워 <204> 한자 이야기 <631>

English section: Please take me to a hospital.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A: Please help me. B: What's the matter with you? A: I can't move. Please take me to a hospital. B: All right. Please stay here. I'll go and get a taxi. A: 절 좀 도와주세요. B: 무슨 일이세요? A: 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B: 알았습니다. 여기에 계십시오. 가서 택시를 불러 오겠습니다. * take me to ~ : 저를 ~로 데려다 주십시오. * I'll go and ~ = I'll go to ~ * What's the matter (with you)? : 무슨 일입니까? * get a taxi : 택시를 잡다

Japanese section: 薬(くすり)を飲(の)まなくちゃだめですよ. 약을 먹어야 해요. A: インフルエンザが流行(はや)っているようですね. B: ええ、私も親(おや)の言(い)うことを聞(き)かないで薄着(うすぎ)して出(で)かけて風邪(かぜ)を引(ひ)いてしまいましたよ. A: じゃ、引き始(はじめ)に薬(くすり)を飲(の)まなくちゃだめですよ. B: そうですね。早速(さっそく)病院(びょういん)へ行(い)ってきます. A: 독감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B: 네, 나도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얇게 입고 다니니까 감기에 걸려 버렸어요. A: 그럼, 초기에 약을 먹어야 해요. B: 그렇죠. 즉시 병원에 다녀오겠습니다. インフルエンザ: 유행성 감기, 독감 流行(はや)る: 유행하다 親(おや): 부모 風邪(かぜ)를引(ひ)く: 감기에 걸리다

Chinese section: 税务局吗 세무서 입니까? A: 喂, 税务局吗? Wéi, shuìwùjú ma? 뭐야, 세무서 뭐? B: 是的, 您哪? Shì de, nín nǎr? 슴, 네 나? A: 我是SW公司的, Wǒ shì SW gōngsī de. 우리 SW 회사입니다. 我们这个月的税少交了吗? wǒmen zhè ge yuè de shuìshǎo jiǎo le ma? 우리 월 거 월세 더 많이 사오니까요? B: 是的. Shì de. 슴. A: 여보세요, 세무서요? B: 맞습니다, 어디십니까? A: 저는 SW회사 직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세금 적게 냈나요? B: 네, 그랬습니다. 税务局 [shuìwùjú] 세무서 税 [shuì] 세금

Chinese section: 開卷有益(개권유익) 열 개, 책 권, 있을 유, 이로울 익. 개권유익(開卷有益)은 책을 펼치면 이로움이 있다는 뜻으로 독서(讀書)를 권장하는 말이다. 이 말은 송(宋)나라의 제2대 왕인 태종(太宗, 재위 976~997년)이 한 말이다. 그는 문치주의에 입각한 중앙집권제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학문을 매우 좋아하였다. 특히 역사서 읽기를 즐겨, 이방(李昉) 등으로 하여금 7년에 가까운 시간을 들여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일종의 분류책과 전서(分類百科全書)인 "태종총서(太平總類)"라는 책을 편찬하게 하였다. 태종은 이 책이 완성되자 매우 기뻐하면서 스스로 "태평어람(太平御覽)"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매일 세 권씩 읽는 규칙을 정하고, 정무에 바쁘면서도 쉬지 않고 독서를 하였다. 이를 본 측근의 신하가 건강을 염려하자 태종은 이렇게 말했다. "책을 펼치면 이로움이 있다(開卷有益). 나는 조금도 피로하지 않다."(繩水燕談錄). 송대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자학(朱子學)이 결실을 맺었다고 한다면, 우리 쪽은 영·정조의 문예(文藝)적 분위기 속에서 실학(實學)이 꽃피었다고 하겠다.